

전시기간 09.06.(TUE) - 11.06.(SUN)
전시장소 국립해양박물관 2F 기획전시실
관람시간 평일(화~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09:00~19:00
추석의일 09:00~21:00
월요일 휴관



오시는 길 대중교통
도시철도 : 1호선 남포동역 6번 출구로 나와서 186번, 66번 버스 이용
버 스 : 186번, 66번 '국립해양박물관' 하차
관광 교통 수단
시티투어 : 부산시티투어(<http://citytourbusan.com/>)
그린라인 코스를 이용 '국립해양박물관' 하차
자가용
동부산권 - 부산항대교 이용 / 서부산권 - 남항대교 이용

관람문의 국립해양박물관 051-309-1900



국립해양박물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web <https://www.knmm.or.kr/>
instagram @_mmkofficial_



2022년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2022年 國立海洋博物館 企劃展示
2022 Special Exhibition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한·중 해양문명의 교류

中韓 海洋文明交流
Maritime Civilization Exchange
of Korea and China

2022
09.06. - 11.06.
기획전시실

한·중 해양문명의 교류

Maritime Civilization Exchange of
Korea and China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국립해양박물관은 중국항해박물관中國航海博物館과
공동으로 기획전 〈한·중 해양문명의 교류〉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는 1부 **학**, 2부 **교**, 3부 **표**, 4부 **예**로,
해양을 매개로 이루어진 학문교류, 문물교류, 인적교류, 예술교류에 관해
탐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가 한·중 문화의 상호이해와 양국 간 교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學 1부 문명,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다

Civilization: Beginning to Cross the sea.

- 유학 사상의 발전
- 고승의 구법 활동과 불교 교류
- 항해를 통한 도래인 유입과 해양신앙

문화 교류가 그다지 원활치 못했던 고대 이전 시대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문화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새로운 문화는 끊임
없이 유입되었습니다. 해로는 단순히 물품 교역로가
아닌 문화가 오가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삼국시대
와 통일신라시대 유학자로 중국에서 활동한 유학자들
과 유학승들의 학문 및 구법 활동은 중국의 역사서에
도 자주 보입니다.

마조여신상 媽祖像
중국 명
중국항해박물관



交 2부 교역, 문물의 정수를 보여주다

Trade: Showing the Essence of Culture

- 고대 문물 교역과 주요 항구의 발전
- 공·사무역 속의 문물 교류품

한국과 중국의 교류 속에 발전한 국제 항구 도시들은 양
국가가 끊임없이 교역을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
니다. 바다를 통해 문물을 배로 실어나르는 것은 육로와
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방대하여, 위험성
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됐습니다. 해로는 세라믹 로드
로도 불릴 정도로 도자기나 원목과 같은 무겁고 많은 물
건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교역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자사호 紫砂壺
중국 청
중국항해박물관



죽천이공행적록 권
竹泉李公行跡錄 乾
이덕형 / 조선시대
국립해양박물관
부신광역시 문화재자료

標 3부 견문,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다

Knowledge and Experience:
Learning about a New world

- 공식 사절 속 항해와 교류
- 개인 표류 경험과 견문

한반도와 중국 간의 왕래가 육로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해로로 이루어지느냐는 양국 간의 지리적 조건과 더불어
정치적 관계, 신뢰 여부, 정치적 안정 여부에 따라 달라졌습
니다. 육로가 막히는 불변함에 바다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
간 사람들은 계절풍과 해류를 통해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우연히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표해록은
사람들의 인식 세계를 넓혀주었습니다.

藝 4부 심미, 아름다움을 건네다

Aesthetics: Handing over the Beauty

- 시·서화 작품에 나타난 교류 활동
- 공예품의 전파와 독자적 발달

한국과 중국의 문명교류는 예술품으로 아름답게 꽃 피
워졌으며 그 가치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시·서화를 비롯
한 서화 작품으로 예술가 및 학자들은 서로의 신의를 쌓
아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로 유입된 중국제 도자기들
은 다시 우리나라의 예술성과 기술력으로 새롭게 재해
석되어 고려청자, 분청사기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역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황비장천」이
새겨진 항해도
무늬 거울
“熒丕昌天”海船紋銅鏡
중국 금 / 중국항해박물관